

순천시 추경 2402억 역대 최대 편성

민생·경제 활성화 최우선... 도시 안정성·경쟁력 확보 중점

총 예산규모 1조 7171억원... 본예산 대비 16.3% 증가

순천시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2402억원을 편성해 지난 7일 순천시의회에 제출했다.

총 예산규모는 본예산 대비 2402억원(16.3%)이 증액된 1조 7171억원으로, 추경 단일 규모 기준 역대 최대규모이다. 일반회계는 1157억원(9.0%)이 증액된 1조 4014억원, 특별회계는 1245억원(65.1%)이 증액된 3157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이미 민생·경제·도시경쟁력 3대분야에 선제적이고 확장적으로 재정을 투입했던 본예산 기준을 이어가면서도, 소상공인, 농업인, 청년, 취약계층 등 각 계층의 어려움을 살펴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보다 세밀하고 촘촘하게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정부가 대규모 추경을 통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에 힘을 실는 가운데, 순천시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재정 운용과 시너지를 발휘해 지역경제 회복 속도가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순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50억원 ▲영세음식점 공공요금 지원 4억원 ▲공공배달 앱 '막개비' 홍보마케팅 지원 3억원 ▲원도심 특화거리 조성 2억원 등을 계상했다.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두터운 복지 실현을 위해 ▲북부노인복지타운 건립 27억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6억원 ▲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기반 조성 10억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4억원 ▲노인일자리 확대 지원 3억원 등을 반영했다.

현장 중심 농축수산업 지원과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 ▲시설채소 현장 대응 기술지원사업 4억원 ▲벼 병해충 공동방제비 4억원 ▲친환경 농산물 생산유통 인프라 구축 3억원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2억원 등을 편성했다.

시민 생활환경 개선과 명품 정주기반 마련을 위해 ▲연향동 도시개발사업 1063억원 ▲남해안 남중권 종합 스포츠파크 건립 103억원 ▲신청사 문화스테이션 건립 42억원 ▲덕연동·중앙동 행정복지센터 건립 35억원 등을 편성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이번 추경은 본예산에 이미 선제적으로 시작한 민생·경제·도시경쟁력 강화 전략을 보다 세밀하게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정부 추경과 더불어 민생이 안정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88회 순천시의회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5일 본회의에서 의결 확정될 예정이다.

/순천=김은중 기자 ejkim@kwangju.co.kr



구례군 곰보금지리 방사장.

구례군 곰보금지리 운영·지원 조례 공청회

50마리 사육곰 보호시설 조성

시민사회 다양한 목소리 반영

구례군이 10일 오후 2시 구례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구례군 곰보금지리 운영 및 지원을 위한 조례 마련 시민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사육곰 보호시설이 조성됨에 따라 향후 운영 주체인 국립공원의 위탁 협약에 앞서 조례 제정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환경과생명문화재단 이다'와 '곰보금지리프로젝트'가 함께 마련했고, 곰 보호시설인 곰보금지리의 운영 목적, 운영 원칙, 위탁 주체의 역할, 운영위원회 등이 포함돼 있다. 구례군은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조례 제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시설 완공 시점에 맞춰 위탁 운영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공청회는 구례군민 등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 현장 발언 및 서면 의견 제출을 통해 군민의 제안과 우려를 수렴할 예정이다.

현재 구례군은 환경부 지원을 받아 구례군 마산면 황전리에 50마리 규모의 곰보금지리를 지어 2024년 말 준공했다. 이어 올해 6-8월에 걸쳐 추가공사를 진행한 뒤 국립공원공단에 위탁 운영할 계획이다. 또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시민단체가 농가로부터 사육곰을 매입해 시설에 수용하면, 국립공원공단이 곰을 돌볼 계획이다.

한편 곰 사육과 응급처치 등의 관행은 2023년 '야생생물법' 개정으로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6년 1월부터 완전히 금지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고흥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 전남도 문화유산 지정 예고

을사늑약 이후 일본군과 격전지 지역 항일역사 '새로운 이정표'

'고흥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이 전라남도 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됐다.

이번 문화유산 지정 예고는 전남도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민족의 얼이 담긴 항일독립유산의 지속 가능한 보존 및 활용 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했던 항일독립유산 문화유산지정 사업이다.

'고흥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은 고흥의 대표 명산인 팔영산 기슭 흔들바위 근처에 있는 능가사의 산내 암자 터다. 1909년 한말 전남지역 의병 항쟁의 후반부 저항지로서 전투 상황이 문헌에 구체적으로 남아 있어 역사적 가치가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이 암자 터는 지형적 특성과 방어적 입지 조건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능가사의 주도로 진행되는 만경암 항일의병 순국선열 합동 위령제는 독립운동 정신과 지역 역사교육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1905년 을사늑약 체결 이후 전국 각지에서 항일 의병이 봉기하는 가운데, 고흥 지역에서도 팔영산을 중심으로 의병들이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당시 고흥에서 활동하던 신성구의 의병대장은



고흥 팔영산 만경암 의병 전적.

약 120명의 의병부대를 조직해 항일 활동을 이어갔으며, 이들은 만경암에 주둔하고 있었다.

1909년 7월 7일 오후 6시, 이들의 위치를 파악한 일본군 토벌대가 기습 공격을 감행하면서 격전이 벌어졌고, 전투는 다음 날인 8일 오후 8시까지 약 26시간 동안 이어졌다. 이 전투로 16명의 의병이 전사했으며, 만경암 일대는 고흥 항일 의병의 치열한 투쟁을 보여주는 역사적 장소로 남게 되었다.

이번 고흥 만경암 항일 의병 전적은 30일간의

예고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전라남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리 지역은 그동안 근대유산으로서 항일의병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저조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국내외 자료 조사, 구술 기록 수집, 전문가 협업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항일 의병과 독립운동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발굴·정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보성 조성면 희망드림협의회

어르신 초복 건강 챙기기

경로당 47곳 백설기·수박 제공

보성군은 조성면희망드림협의회가 지난 7월부터 오는 18일까지 '무더위 탈출! 어르신 초복 건강 챙기기'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과 함께하는 조성면' 사업의 일환으로,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연계모금사업과 관내 지역민의 기부로 시행된다. 관내 경로당 47개소를 대상으로 백설기·수박 등 간식을 전달하고, 무더위 속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폭염 대비 행동 요령과 주의사항도 함께 안내하고 있다.

전병형 조성면희망드림협의회 위원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르신들께서 시원하고 안전하게 여름을 보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인숙 조성면장은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 어르신들의 건강관리가 각별히 요구되고 있어 마련



보성군 조성면희망드림협의회가 조성면 경로당 47곳을 대상으로 백설기, 수박 등을 전달하는 초복 건강 챙기기 행사를 진행했다.

된 사업으로 앞으로도 지역민 맞춤형 복지서비스 사업을 지속 추진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성면희망드림협의회'는 지역 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나눔 활동과 민관협력 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곡성경찰 '공동체 신뢰회복' 기초질서 캠페인

곡성경찰서가 지난 9일 오전 옥과 5일시장 일대에서 경찰, 곡성군청, 옥과면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체 신뢰회복을 위한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사진> 이번 캠페인은 일상 속 대표적인 국민 불편 및 공공질서 저해 행위인 ▲쓰레기 투기 ▲광고물 무단 부착 ▲음주소란 ▲무전취식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곡성군민들의 자발적인 인식 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



이 스로 질서 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유도하였다.

곡성경찰서장은 "작은 실천이 건강한 질서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곧 신뢰받는 사회의 기반이 된다"면서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업체 질서 확립과 군민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곡성=박순규 기자 psk8210@

광양 6월 출생아 수 100명...33개월 만에 세자릿수 기록

올들어 548명...전년비 25% 증가

올해 6월 광양시의 출생아 수가 100명으로 33개월 만에 다시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지난 2022년 9월(102명) 이후 처음으로 월간 출생아 수가 100명을 넘어서며, 저출산 위기 속에서 이례적인 반등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광양시에 따르면, 올해 6월 출생아 수는 100명으로 전년 6월(62명)보다 61.3% 증가했다. 통상 5월에서 6월로 이어지는 시기는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지만, 올해는 이례적으로 증가세로 전환되며 반등세가 더욱 뚜렷해졌다.

최근 4년간 5·6월 출생아 수를 살펴보면 2022년 84명(5월)→59명(6월), 2023년 81명→62명,

2024년 83→62명으로 감소했다가, 올해는 92명에서 100명으로 늘었다.

시는 이번 결과가 단순한 계절적 변동이 아니라, 2024년 7월부터 이어진 12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증가세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올 상반기 출생아 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110명(25.1%) 늘어난 548명으로, 전반적인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변화는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코로나 19 이후 사회 전반의 안정감 회복, 혼인율 증가, 결혼 적령기 인구 유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단기적 반동이 아닌 구조적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광양시는 출생아 수 증가와 더불어 합계출산율

도 개선되는 등 인구지표 전반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시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1.06명에서 2023년 0.99명으로 떨어졌으나, 2024년에는 1.09명으로 반등했다. 이에 따라 전국 78개 시 단위 자치단체 중 합계출산율 순위는 2023년 9위에서 2024년 5위로 상승했다. 이러한 수치는 단기적인 수치 변동을 넘어 지속 가능한 인구 회복의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이같은 변화의 배경에는 청년층의 정착과 주거 안정을 뒷받침한 인구·복지 정책이 있다. 특히 2024년 6월 광양시의 이차전지산업 기회발전특구 지정과 함께, 그동안 추진해 온 청년 일자리 및 정주 여건 지원 정책이 효과를 내며 인구 증가에 힘을 보탤다는 분석이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



여수시 미평동 민관 협력 취약가구 담장 정비

여수시 미평동이 지난 3일 민관이 협력해 양지4길 일대의 취약가구 담장을 정비했다. <사진> 해당 지역은 노후 주택과 빈집이 밀집해 있어 청소난 우려와 주민 생활 불편이 제기돼 온 곳이다.

집중호우 시 붕괴 우려가 제기돼 온 장애인가구의 주택 담장은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시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미평동은 ㈜우주종합건설의 재능기부를 받아 해당 담장에 대한 안전을 진단하고 보수 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에는 김영태 대표를 비롯한 ㈜우주중

합건설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골목길 주변 환경 정비 활동도 진행했다.

현장을 찾은 송하진 여수시원은 "행정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지역 중소기업이 나서줘 깊이 감사드리다"며 "앞으로도 민간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유수성 미평동장은 "주민 안전 확보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위기 가구 발굴과 민관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수=김창화 기자 동부취재본부장 chkim@